

- 본문 : 요한복음 13장 21~30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배반한 제자”

· 본문 읽기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딱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앓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배반한 제자”는 바로 ‘가롯 유다’이다. 가롯 유다를 주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그의 악의를 아셨을까?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강요된 운명이었는가? 많은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것을 보면(눅6:12), 많은 무리 중에서 열두 제자는 엄선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고귀한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신 것이지, 배신할 자로 인정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부활 후 다락방에 모여 맛디아를 보선했 때 베드로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행1:25b)라고 한 것처럼, 가롯 유다 스스로 자기 의사 결정으로 배신자가 된 것이다.

1. 당신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는 환경적인 유혹이나 심리적인 갈등 또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는가? 선택받은 제자로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무엇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돈궤를 맡은 회계로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머물면서 적어도 2년 이상 제자의 삶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배반자가 되어 버린 제자’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는 어떤 인간 됨됨이와 신앙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 (1) 요한복음 12:6, 마태복음 26:14b~16
- (2) 요한복음 12:5, 이사야 64:6a
- (3) 요한복음 13:2, 마태복음 27:3

3.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가롯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살펴보았을 때 가롯 유다에게 있는 세 가지 약점이 당신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4. 우리 내면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던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갈2:20a)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욕망과 위선과 어리석음은 끝없이 고개를 들려고 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날마다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떤 부분을 ‘자기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공동체에 속한 동역자에게 기도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 말씀기도제목

1.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배반자 될 가능성도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움켜쥔 손을 펴서 ‘물욕’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포기하며 ‘위선’을 없애고, 마귀의 유혹을 깨달아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과 진정한 회개”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